

[목회자 모임] 그리스도 - 전신갑주

2018. 6. 8. 이현래 목사님

[에베소서 6:10~20]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엡6:10~20).”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한다.

어제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남편과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는 이야기를 해보면 끝이 없다. 어제는 그 자매가 아주 밝은 얼굴로 왔다.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옷 입고 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한다. 너무 신통했다. 그 예수를 옷 입고 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자기가 너무 좋아서 간증을 하려고 일부러 왔는데 듣고 보니까 과연 그럴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다. 구원의 투구와 갑옷과 신발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구해질 것이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기독교인들이 주로 하는 방식은 기도를 해서 사탄의 유혹과 계교를 물리치고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속여서 역사를 바꿔놓은 사탄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기도하다가 오히려 다른 길로 빠져버리고,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 엉뚱한 것과 싸우다가 만다. 전력만 소비하는 것이다.

전쟁하는 사람이 목표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표도 분명치 않고 무기도 없으니까 싸운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만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으니까 알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귀를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마귀가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모른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데,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신화 같은 이야기이다. 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린다. 그때 우리 위치가 이탈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렵다.

나도 옛날에 사탄이 한 것은 내 위치를 이탈시킨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우리는 속아도 보통 속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여주지 않는 한 알 길이 도저히 없다.

아담이 그것을 몰랐겠는가? 다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담도 다 안다. 그런데 모르고 속은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아담도 다 하는 방법이다. 아담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무기밖에 없다. 이런 무기를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여러분도 6.25. 전쟁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제 최신 전투기 야크기가 200대나 준비되어 있었고, 탱크가 200대나 준비되어 있었고, 기타 완전 무장을 하고 남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투기 한대가 없었다. 탱크는 말할 것도 없었다.

오죽하면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겠는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무기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겠는가? 그것을 기도한다고 버티겠는가? 육탄으로 막는다고 탱크가 막아지겠는가? 하도 안 되니까 트럭에 장병들을 싣고 와서 탱크 앞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그러니 살아남았겠는가? 어쩌다 하나가 살아 기어 올라가서 탱크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던지고 같이 폭탄자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겠는가? 탱크만 오면 우리는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형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기가 없다. 겨우 하나님 말씀이라

는 것도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신명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을 인용했다는 것밖에 모른다. 성경구절을 가지고 물리친다고 물러나겠는가? 주문도 아니고 부적도 아닌데 그것을 한다고 마귀가 물러나겠는가? 터무니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 상황이 변해질 수 없다. 신앙이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는가? 열정만 가지고 바꾸어지겠는가?

그런데 이 자매가 간단하게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한 자매의 간증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천로역정이 바로 그것이다. 온갖 난관을 헤치고 천성문에 간다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중세 작품이지만 지금 기독교인과 다른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을 좁은 문으로 핑계를 댈다. 성경에는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도 있다. 새 예루살렘은 열두 문이 밤낮으로 열려있다. 아무도 못 들어갈 사람이 없도록 열려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문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에 가서 비비고 있으면 되겠는가?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으니까 두드리고만 있으면 되는가?

전신갑주가 있다면 능히 마귀의 계교를 물리칠 수가 있다. 여기에 전신갑주를 쫓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 둘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다. **우리를 완전히 감쌀 수 있는 전신갑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으로 다시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 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너희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우상이지 않느냐? 우상과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우상은 말을 못하는 신이고, 우리는 말하는 신이라는 것이다.

말씀이 주류가 되어있었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면 뭐가 되어버리는가? 금방 그것이 법이 되고 계율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

온 것인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만 법이 되고 계율이 되는 것이다. 법이 되고 계율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다.

이번에 치과에 가니까 살아있는 치아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해도 약을 쓰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하는 임플란트는 뼈에 못을 박아서 세워놓은 것이라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빛나가 버려도 못 쓴다고 한다. 생명이 아니니까 다시 회복력이 없다.

기독교가 되었든지 불교가 되었든지 마음이 없으면 계율이 되고 만다. 천하에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구약의 계명들은 당시 역사로 본다면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것보다도 더 완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못 되고 오히려 빛나간 길이 되고 말았다. 계율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계율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쉽다. 계율대로 지키면 된다.

유대인 달력에는 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은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뒤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늘 하나님과 관계된 복잡하고 웅색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오늘날 천주교도 그렇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천주교인이 된다. 미사에 참여하고 떡 먹고 잔 받으면 천주교인이 된다. 참 간단하고 쉽다. 또 간단하고 쉬워서 천주교에 다닌다고 한다.

개신교는 좀 까다로운 것이 기도하라고 하고 끝이 없다. 기도가 끝이 있겠는가? 사랑이 끝이 있겠는가? 희생과 봉사가 끝이 있겠는가? 그래서 끝없이 한다.

이것이 하나의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피아노학원과 미술학원이 동네에 있다. 피아노학원은 잘되고, 미술학원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피아노학원은 커리큘럼이 있다. 이것 떼면 다음 것을 하는 과정이 있다. 시작을 하면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런데 동네 미술학원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한달 하다가 가는 아이가 있고 두달 하다가 가는 아이도 있다. 중간에 가도 별 지장이 없다. 미술학원을 하면 어렵다. 아이들이 계속 바뀌고 오다가 마니까 어렵다.

피아노학원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시작하면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 정해져있다. 학

교 졸업하듯이 그렇게 되어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다. 천주교는 6개월 동안 예비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런 후에 영세를 받는다. 영세를 받게 되면 바티칸의 시민이 되게 된다. 그런 것으로 딱 정해져서 안전하다.

개신교는 커리큘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막연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도 해도 끝이 안 난다. 얼마만큼 하면 다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상달되는 것인지 모호하고, 봉사를 어느 정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도 모호하고 모든 것이 다 모호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모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모호하고 모든 것이 다 모호하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고 말해놓고, 이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고 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불려서 갔다. 축복한다고 해놓고 축복하니까 축복이 되었다. 다 그랬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1,3).”

그 만물은 창세기에 있는 그 만물과 다른 것이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마귀를 이기는 것도 그 계교를 물리치는 것도 그로 말미암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말이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한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가 없이 만들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만 사실은 건축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진 것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신학사상 같은 것은 옛날과 너무 다른 것이 옛날에는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났다. 계시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 인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보자. 현대신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나왔다고 한다.

현대신학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무엇을 찾을지 모르는 것이다. 애매하고 모호하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들을 때는 그럴 듯하게 들었는데, 듣다 보면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소용이 없으니까 다 흩어지고 사람이 없어진다. 지금 철학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여 융합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융합을 하나 흩어지나 매 한가지이다.

하나님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다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를 다시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모호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4,18).”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는 말이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가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만날 길이 없었다. 그것이 구약이다. 신약에 오면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진 바가 없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예수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신갑주도 구원의 투구가 다르고, 복음의 신발이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그가 없는 무기는 없다는 말이다. 그가 아닌 무기는 없다.

사람을 원위치에서 이탈하게 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이다. 우리에게 술을 먹인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대항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우리를 인생의 위치에서 이탈하게 한 마귀와 싸우는 일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외에 무슨 무기가 있겠는가! 그 무기가 아니고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전신갑주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계교를 물리치는 전신갑주가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신갑주가 되었는가? 안 된다. 그냥 예수를 믿어서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하는가? 그분으로 내가 못 입지 않으면 예수가 없다. 그분으로 내가 갑옷을 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 우주적인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말인데, 이 전쟁의 주제는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이다.

사람이 사람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 이하의 어떤 것이 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마귀의 밥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 댈 수가 없다.

개를 바꾸어서 소를 만들 수도 없고, 소를 바꾸어서 개를 만들 수도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서까지라도 그에게 부가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체되고 오직 사람만 남았다. 오직 사람만 남은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알게 되면, 내가 유혹 받을 일도 없고, 내가 걸려 넘어질 일도 없다.

우리가 항상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된다. 제자리에 있으면 유혹 받을 일이 없다.

나는 사람은 사람되는 것이 목적이고, 벼는 벼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벼를 심어놓으면 뭐가 되는가? 벼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심어놓으면 도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뭐 다른 것이 되겠는가.

사람이 사람이 되면 성공이고, 사람을 심어놓았는데 다른 것이 나온다면, 혹 천사가 나왔거나 혹 하나님 같은 것이 나왔다면 괴물이다. 벼를 심어놓았는데 벼가 안 되고 피가 되어버렸다면 실패한 것이다.

사람을 심었으면 사람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양식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다.

너무너무 단순한 무기이다. 무기는 한 가지인데, 싸우는 방면에 따라 투구도 되고 갑옷도 되고 신발도 되는 것이지 투구 따로 신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딱 하나 뿐이다.

이것이 유일한 무기이다. 이 무기 외에 다른 무기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울무에 걸려서 자기 궤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탱크를 왜 막지 못했는가? 우리에게 대전차포라고 것이 없었다. 로켓포라는 것이 간단한 포이다. 아주 중요한 포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무기도 아니었다. 개인이 소지하고 가는 무기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오는 전차를 막지 못했다. 대전차포만 있었더라면 막는다. 유일한 무기가 우리에게 없었다. 탱크가 밀고 내려오니까 누구 그것을 감당해 내겠는가.

나는 그때 공주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좌익 쪽 선배들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인데 전쟁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 속에서 트럭에 빈 드럼통을 줄줄이 매달아서 끌고 가면 소리가 요란하니까 그 소리만 듣고도 다 도망간다는 말도 있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얼마나 전차가 무서웠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는가.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100% 당했다. 대전차포만 있었으면 200대 정도야 간단히 부실 수 있다. 그러나 대전차포가 없었기 때문에 탱크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많은 장병들이 그 앞에 깔려 죽었다. 서울시민이 그 탱크 앞에서 다 항복하고 말았다. 전부가 도망갔다. 그 탱크 때문에 한강다리도 끊어졌다.

우리도 대전차포가 없으면 전차를 이길 길이 없듯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려도 탱크가 잘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 뒤로 미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했는데 감당을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전차포는 그냥 뚫어진다고 한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다. 쉽게 말하면 대전차포이다. 어제 그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통쾌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이구나. 그 자매는 전신갑주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기가 뒤집어쓰고 사니까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나는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투구 따로 구하러 다니고, 신발 따로 구하러

다니고, 말씀 따로 구하러 다니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구해지겠는가? 말씀도 가 보면 그리스도이고, 신발도 가보면 그리스도이고, 갑옷도 가보면 그리스도이고, 투구도 가보면 결국은 그리스도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도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도 그리스도이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왜 죽고 다시 사는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고 로마서 6장에서 그런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4).**” 새 생명도 그분과 함께 있지 그분 따로 새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못했다. 새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다.

또 새 생명이라는 것을 찾느라고 헤맨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면 또 구원의 투구를 찾느라고 또 헤맨다.

그 근원이 전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몰랐다.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나팔을 불되 분명하게 불지를 못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분명하게 불지를 못하면 후퇴하라는 것인지 전진하라는 것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전쟁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영육 간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없으면 허당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고 해답이 생기지 않는다.

말씀의 근원은 딱 한가지뿐이다.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였다.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발원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분 자신이 나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분 없는 말은 허공을 치는 말이다.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그분을 근원으로 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비록 내가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하더라도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야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려면 내 안에 그분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과 내가 하나여야 된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아닌데 어디서 그분의 말을 갖다가 쓰겠는가? 그것은 교육에 불과하다. 내 생명과 무관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내가 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다 사도들이 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인가? 사도들을 통해서 말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니까 우리말이라면 누가 말해야 하나님 말씀이 되겠는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할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내 생명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내가 40년 전에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것이 없는가?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는가? 나는 10년 동안 뭘 했는가? 10년 만에 캄캄한 밤이 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왔다.

그리스도가 내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흘러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전혀 나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교회를 보고 있으면 이따금 이런 간증이 나오지만 한 번 이런 간증이 나오면 내 자신이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또 저 사람 속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이야기했는데, 이 자매는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전신갑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신갑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석하는 곳이기도 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지 거기에 수없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사도바울에게 그 예수가 들어가서 오늘 이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5:20).”** 그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요즘 보니까 신학이나 이런데서 논쟁하고 논의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허공에서 노는 것 같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할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이러니저러니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5:20).”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이 목회서신을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목회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고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예수로부터 나온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인가? 자기 위치에 있는 예수이다. 우리 모두를 구속한, 우리 인류를 구속한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다. 그분으로부터 이 말이 나오게 된다.

사람이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람이 비정상적이면 비정상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다. 우리 된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된 대로, 이 간단한 문제가 너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 된 대로 아주 쉬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 된 대로, 사람이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동물 되기가 쉽겠는가? 천사되기가 쉽겠는가? 사람 되기가 쉽다. 천사가 되려니까 힘들다.

어떤 사람은 동물 되려니까 속상한 것이다. 자기가 해봐도 자기가 속이 상한다. 동물 짓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비참하니까 또 자기를 한탄하게 된다. 자기가 한탄스러우면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법이다. 그것이 참 이상하다. 천사가 되려고 하면 되겠는가? 이마에 땀이 흐른다. 안될 짓을 하니까 땀이 흐른다.

저주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 저주이다.

서울대를 못 갈 학생이 기어코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 적어도 IQ가 얼마는 되어야 할 텐데, 그 IQ가 안된 사람이 기어코 가겠다고 하면 저주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안 될 짓을 하면 저주가 되고, 될 짓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위치가 사람의 위치다. 사람의 위치가 시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그리고 또 명령까지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었다.

사람의 위치로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

너무 좋지 않은가! 나는 사람 되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너무 쉽다. 하나님 아느냐고 하면 나는 모른다고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아는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다. 그것을 아는 체를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사람 말을 하려면 너무 쉽다. 사람으로서 말하려고 하면 너무 쉽다.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위치를 회복해서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성분인 천국의 확산이다.**

똑같은 것인데 술은 주정(알콜)으로 만든다. 그런데 알콜만 가지고는 술이 안 된다. 거기다 물을 타야 술이 된다. 나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술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알콜과 마찬가지로 말한다.

알콜이 확대되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술 따로 있고 알콜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서로가 다 같이 있는 것이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다 같이 있는 것이다. 천국 따로 하나님 나라가 따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길을 보여주신 것을 나는 무지 무지 감사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없어지는데 내가 그 복잡다단한 신학에 매여 있었으면 그것을 다 기억해내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여간해서는 너무 간단해서 잊어먹지 않을 것 같다. 가끔가다가 한 번씩 기억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겁나는 때가 있다.

이번에도 늘 열던 컴퓨터인데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가 하고 백방을 해봐도 안 된다. 내 암호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 암호를 놓으라는 그 말을 생각하지 못했다.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다 찾아보고 다 두드려 봐도 다 안 된다.

할 수 없이 남**형제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누가 컴퓨터를 잘 못 손을 댔나보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암호가 따로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날마다 쓰는 암호가 생각나는 것이다.

아침에도 쓰면서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데 가서 찾으니까 찾아지겠는가? 교회생활에 가서 찾아도 안 되지, 아무데 가서 찾아도 안 되는 것이다. 다 거기마다 암호를 다르게 해놓았다. 그러니까 다 쳐봐도 다 안 된다.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깜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야 잊어먹겠는가? 절대로 안 잊어먹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잊어먹겠는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벌거벗은, 완전하게 해체된, 예수를 잊어먹겠는가?

복잡한 것은 다 잊어 먹어도, 오병이어서 먹었는지 사병이어서 먹었는지 이런 것은 다 몰라도 상관이 없다. 나사로를 살렸는지 죽였는지 그것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을 외워서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 것은 혹시 잊어 먹을 수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참 사람, 그 사람은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진실하니까 너무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실 아닌 것, 진실 아닌 것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

내가 수학을 못한다. 기회가 없어 배우지도 못했지만 머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수학적인 머리가 아니다. 왜 안 되는가? 수학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 왜 이것은 이렇게 되는가를 몰라서 못 했다.

다른 사람은 외워서 가면 된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뒤집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렸을 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결국 분수를 못하고 말았다. 분수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천재스럽게 보인다. 분수를 모르니까 무엇을 하겠는가? 아무것도 못 한다. 분수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수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기초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잘된 것이다. 그것을 잘했더라면 내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오게 되었다. 그것도 특이하게 감사한 그런 일이다.

영원히 잊어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있을 것이다.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잡게 되었다. 영원히 잊어먹지 않을 것, 내가 죽어도 있을 것,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있을 것, 우리는 그것을 잡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천사가 되지 못할 것이고, 전능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결함이 있지만 사람이다. 결함이 있지만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특이한 용도가 있다. 그 용도에만 맞으면 되니까 결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무엇이 완전한 것이 있는가? 어디에서 완전하다는 이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와서 다른 견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처럼 모순이 많은 분이 없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많지 않다. 여리고 성이 들어갈 때 사랑이 있는가? 나도 그렇게 안하겠는데, 그럴 때는 나보다 사랑이 더 없다. 아말렉을 무찌를 때 사랑이 있는가? 없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유일하신 분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20:2,3).” 이 말은 나 외에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맞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다. 그냥 살고 있는데 괜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기 시작했다. 애굽에 내려

갔다가 400년을 뭐 하고 있다가 또 와서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다.
지금 2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것이다.
만일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정말 불합리한 하나님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해 줄 하나님이 없다.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객관적으로 완전하고 불완전 한 것이 없다.

볼펜은 볼펜으로 완전하면 됐고 만년필은 만년필로 완전하면 된다. 만년필이 볼펜처럼 완전할 수 없고 볼펜은 또 만년필처럼 완전할 수 없다. 좋은 만년필을 왜 가지고 다니는가? 중요한 사람들이 사인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쓴 만년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인은 흉내 낼 수 없다고 한다. 각도가 달라서 절대로 모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쓰는 만년필로 사인을 해 놓으면 다른 만년필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도장은 도장 가게에 가서 파 버리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거기만 완전하면 되는 것이지 만년필이 비싼 만년필이냐 싼 만년필이냐? 그것은 소용이 없다. 내가 쓰는 만년필로 사인을 하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우리 인생도 복잡하게 완전한 것을 생각하면 끝도 없이 불완전하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 생각하면 다 완전하다.

사람의 자리에만 있으면 지옥 갈 염려도 없고 불탈 염려도 없다.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오늘 좌우간 그 자매가 와서 전신갑주에 대한 빌미를 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를 내가 뒤집어쓰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그것이 전신갑주라는 말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것이 전신갑주임을 알 수 있다. 그 자매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짧게 하려는 것이 또 한 시간이 됐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